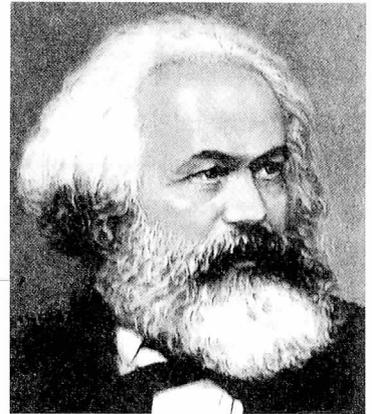


모든 견고한 것들은 돈 속으로 사라진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돈의 본질

이채언 |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칼 마르크스

“금전은 인간의 순결한 심성을 타락시키며 염치없는 행위와, 간악한 생각과, 배신을 사람에게 가르친다”(소포클레스). “이 놈은 다 만들어놓은 신앙도 부수어버리며 저주받은 자도 축복을 주며, 문둥병자 앞에서도 절하게 만든다. 도적에게도 사회원로 지위와 명예를 주며, 늙어빠진 과부도 시집가게 한다”(셰익스피어).

돈은 공동체 자체이고 인간됨의 전제 위 의 인용문 가운데 하나는 고대부터 화폐가 사회의 경제적 및 도덕적 질서의 파괴자임을 일찍이 간파했던 예로,

다른 하나는 화폐가 평등주의 원칙을 극대화시켜 일체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시켜주는 위력을 지닌 예로,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1권 제3장의 주석에서 열거한 것들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개별 생산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생산한 물건을 상호 평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간이다. 이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개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기존 공동체를 구성하던 인간들은 모두 파편화돼 뿔뿔이 개인으로 흩어져 각기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혼자서만 사는가? 이웃이 필요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그런 필요를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다. 이웃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면 돈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면 되고, 외로움이나 생활의 고달픔 또는 육체적·정신적 괴로움을 풀기 위해 적절한 조건자가 필요하면 그것도 돈으로 시장에서 다 구매하면 된다. 시장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있다.

시장경제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을 파편화하고 불구로 만들어 고립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립된 개인들이 교환관계를 통해서만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교환관계를 통한 인간과 인간의 연결은 돈이 있어야 성사될 수 있다. 돈 없이는 이런 사회적 관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돈이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 돈이야말로 공동체 그 자체고 인간됨의 전제가 된다. 그래서 일찍이 돈의 붕괴는 사회 그 자체의 붕괴로 연결됐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마르크화 붕괴가 그랬고 지금의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붕괴가 그렇다. 요즘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나라의 6·29 시위처럼 길거리 소요가 몇달째 매일 벌어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볼 때 국가나 민족은 가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고 돈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때문이다. 과거의 독일 중산층은 군사적 강압으로라도 돈의 위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치체제에 찬성했지만 지금의 아르헨티나 중산층은 그런 강압적 방법으로 돈의 위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기들만 최대의 사회적 피해자로 만든다’는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 대신 돈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사회, 시장경제를 대체할 사회를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돈만이 신뢰의 수단 애당초 돈이 공동체일 수 없었다. 시장 경제에서는 개개인이 파편화되고 고립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 돈만이 가장 확실한 신뢰의 수단이 됐을 뿐이다. 그런데 그 돈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돈이란 것도 결국엔 일종의 사회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일찍부터 케인즈는 귀금속을 절대화해 신뢰하는 것이 환상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발행한 종이조각을 믿으라고 권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귀금속의 생산에 들어갈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공익적인 일에 대신 쓸 수 있는 길을 연 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케인즈는 정부마저 화폐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 돈을 맹신한 사람들이 모두 극락왕생(안락사)할 거라는 식으로 미래에 낙관적이다. 종이보다는 인간을 직접 신뢰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돈이 지배하는 지금-이곳은 아련한 추억거리로 남게 될지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회에서는 일찍이 실현될 수 없었던 사회적 평등주의가 극도로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못 생겨도 돈만 있으면 미인이 되고,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도 돈만 있으면 존경할 만한 인간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좋은 시절로 우리 기억에 남을지 모른다. ■

이채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Marxian Economics》(공저), 《IMF의 개관—그 구조와 역사》《가치논쟁》(마르크스의 방법론과 가치론) 등을 펴냈다.